

張潮의 尺牘集 研究

- 『尺牘偶存』을 중심으로 -

송경애*

目 录

1. 서론
2. 명청 시기 尺牘集 편찬의 유행
3. 張潮 尺牘의 주제와 서술적 특징
 - 1) 尺牘의 주제
 - 2) 尺牘의 서술적 특징
4. 결론

1. 서론

尺牘이란 尺素, 尺函, 尺書라고 부르기도 하며 훗날 편지의 통칭이 되었다. 본래 척독의 牘은 木板을 가리키는 말이며, 한 자 정도의 木板을 척독이라고 한다.¹⁾ 書와 척독의 차이는 편폭의 長短에 있는데, 書는 일반적으로 긴 내용의 편지를 가리키며 척독은 짧으면서도 서정적인 편지를 일컫는다. 척독이란 단어는 일찍이 漢代 典籍에서 공문서나 개인의 사적인 편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²⁾ 원래는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실용문이지만, 점차적으로 글쓴이의 감

* 그리스도대학교 외국어학부 중국어전공 조교수

- 1) 許慎著, 班吉慶點校: 『說文解字』: “牘, 書板也”, 鳳凰出版社, 2004년, 194쪽.
- 2) 척독이라는 단어는 『史記』와 『漢書』에서 이미 공문서와 書信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史記·扁鵲倉公列傳』에서는 “제영이 상소문을 올려 그의 아버지가 무사할 수 있게 되었다.(緹縈通尺牘, 父得以後寧)”라고 하여 척독이 공문서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漢書·游俠傳第六十二陳遵傳』에서는 “본디 글을 잘 지어 사람들에게

정과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詩詞나 古文과 같이 문학적으로 손색이 없는 문학작품으로 발전하였다. 척독이 공문서의 실용적인 성격을 넘어서 개인의 진솔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문학작품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明代 중엽 이후부터이다. 당시 대표적인 척독 작가로 袁宏道, 李贄, 張岱, 湯顯祖 등이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진솔한 생각과 감정을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받는 사람뿐 아니라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까지 감동을 주었다.

척독의 주요 특징은 바로 직접적이고 솔직한 자신의 표현이다. 척독은書信이기 때문에 받는 대상이 보통 한 사람이며, 대부분 작가의 가족, 친구 또는 동료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진심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 작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周作人은 “日記와 척독은 문학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장르이다. 다른 문장들과 비교했을 때 작가의 개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詩文이나 소설, 희곡은 모두 제삼자에게 보여주는 글이라서 비록 정련된 예술성은 구비하고 있지만 각색된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척독은 단지 상대방에게만 보여주는 것이고, 日記는 자기 자신에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진실 되고 순수하다”³⁾라고 하였다. 또한 趙樹功은 『中國尺牘文學史』에서 “척독은 작가, 학자, 정치가 등의 생평, 사상, 정감, 개성을 연구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기초 자료이며, 독자가 작가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이다”⁴⁾라고 설명했다. 지금껏 척독의 문학적 가치보다 문헌적 가치를 중시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척독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인과 시대별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즉, 특정 작가의 척독에 나타난 문학과 예술성 연구 및 문화적 함의에 대한

편지를 써 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의 편지를 소장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다.(性善書,與人尺牘,主人皆藏去以爲榮)”라고 하여 척독이 개인의 사적인 편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3) 周作人, 『雨天的書』, 「日記與尺牘」, 長沙: 岳麓書社, 1987, 11쪽.

4) 趙樹功, ‘它是研究一个作家、學人、政治家等人物生平、思想、情感、个性不可缺少的第一手資料, 是讀者窺視作家心灵的窗口’, 『中國尺牘文學史』,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9, 20쪽.

연구, 시기별 척독에 대한 특징 연구가 대부분이다. 5) 본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清代 초기 문학가이자 출판가였던 장조의 척독집이다. 장조는 당시 文壇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명말청초 문인들의 小品文을 수집하여 출판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幽夢影』, 『聊復集』 등이 있고 편저로 『虞初新志』, 『昭代叢書』, 『檀几叢書』 등이 있다. 장조는 출판활동을 하면서 당시 문인들과 폭넓게 교류하였고, 그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모아 『尺牘友聲』과 『尺牘偶存』을 편찬하였다. 그 중 『척독우존』은 장조가 당시 문인들에게 보낸 편지 약 450여 통을 모아 수록한 尺牘集이며, 『척독우성』은 당시 문인들이 장조에게 썼던 서신들을 모아 수록한 것이다. 本稿는 장조의 척독을 연구하기 위해 『척독우존』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장조가 이러한 척독집을 출판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 장조의 『척독우존』에 수록된 척독의 주제와 서술적인 특징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명청 시기 尺牘集 편찬의 유행

척독이 갖고 있는 주된 기능은 바로 정보의 전달과 교류라고 할 수 있다. 편지를 받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정보의 교류는 편지를 주고받는 두 사람 간에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척독은 가족과 친지끼리 안부를 묻고 벗들에게 정중하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일상적인 情感을 나누는 내용, 때로는 정치와 학문을 논하거나 문장을 비평하는 내용 등 그 주제가 매우 다양하다. 척독은 문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대부분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척독은 문인들의 소통의 매개체로서 이전 시기부터 줄곧 이용되었고, 문인

5) 개인의 척독을 연구한 학위논문으로 崔麗 「蘇軾尺牘研究」, 陳娟 「袁宏道尺牘研究」, 楊興美 「李之儀尺牘研究」, 崔晶萍 「湯顯祖尺牘研究」, 吳永斌 「王羲之尺牘研究」 등이 있으며, 특정시기의 척독을 연구한 논문으로 孫丹萍 「兩晉尺牘文學研究」, 陳廷玉 「建安尺牘文學研究」 등이 있다.

들의 작품집 속에 수록되어 후세에 전해졌다. 이러한 척독이 본격적인 척독집으로 간행되기 시작한 것은 명 중엽 이후 개인의 감정과 개성을 중시하는 문학풍조가 유행하면서부터이다. 명 중엽 이후에는 문인들을 중심으로 개성과 자아를 중요시하는 小品文 창작이 유행하였고, 이에 따라 小品文 성격을 지닌 척독이 문인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척독집이 편찬되어 널리 유행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척독을 실용문이 아닌 문학작품으로 인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문인들은 척독을 통해 議論과 敘事, 抒情이 혼합된 자신만의 개성과 자아를 표현하였고,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생활의 정취를 섬세하게 묘사하였다.⁶⁾ 晚明 시기 대표적인 척독집으로 袁宏道『石公尺牘』, 陳仁錫『尺牘奇賞』, 王世貞『尺牘清載』이 있으며, 清代에는 許思淵『秋水軒尺牘』, 龔萼『雪鴻軒尺牘』, 周亮工『尺牘新鈔』, 汪淇『尺牘新語』 등이 편찬되어 일반 독자들에게 널리 熱讀되었다. 이러한 척독집이 간행되어 일반 독자들에게 널리 공개되고 나면 척독은 더 이상 정보전달과 정보교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독서물이 된다. 즉, 주로 수신자에게만 보여 지는 척독이 일반 독자들에게 공개됨으로써 척독은 남을 엿보고자 하는 독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중들의 독서물이 되는 것이다.

장조는 『尺牘新鈔』를 편찬한 周亮工과 평생 동안 각별하게 교류하였다. 그의 편집 출판활동은 여러 면에서 周亮工의 영향을 받았는데, 대표적인 예로 『尺牘新鈔』의 편찬방식을 『척독우성』과 『척독우존』 편찬에 그대로 도입한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척독집이 인명 중심으로 분류하여 수록한 반면 『척독신초』는 편지를 받는 순서대로 편찬하였는데, 장조의 척독집도 이러한 편찬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장조의 척독집에는 당시 문인들과의 교류 활동과 그의 출판 저작 활동에 관한 과정들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서정적인 문장이나 해학적인 글, 정중하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글, 사소한 일상사를 다룬 글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진실 된 감정을 표현함으

6) 尹恭弘, 『小品高潮與晚明文化』, 北京: 華文出版社, 2001, 49쪽.

로써 척독을 읽는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감동과 재미를 가져다주었다

3. 張潮 尺牘의 주제와 서술적 특징

1) 尺牘의 주제

척독은 소식을 전하거나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일상의 모습과 작가의 솔직한 감정을 담고 있는 글이다. 어떤 내용은 무겁고 진지하나, 어떤 내용은 웃음과 해학이 넘쳐나는 가벼운 내용이기도 하다. 장조의 척독은 敍事와 議論뿐 아니라 抒情性도 함께 갖추고 있다. 척독의 주제를 대략적으로 네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생각과 토론

척독은 사적인 소통의 창구로서 글을 쓴 사람의 심정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반박과 주장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 학문과 문장을 토론하거나 때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글에 조목조목 따져서 반박하기도 한다. 장조는 許承家에게 보낸 편지에서 올바른 古文을 배우는 법과 當代 문인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었다.

저는 古文은 대략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大家의 문장과 名家의 문장이지요. 古文을 배우려면 마땅히 大家의 문장을 배워야지 名家의 문장을 배워서 안 됩니다. 大家의 문장을 배우다가 설령 잘 배우지 못하더라도 소위 백조를 그리려다 실패해서 비슷하게 생긴 짐오리를 그릴 수는 있지요. 그러나 만약 名家의 문장을 배우다가 실패하면 마치 호랑이를 그리려다 실패해서 도리어 개를 그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제가 사귀 벗들 가운데 학식과 기량이 뛰어난 자는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부합되는 사람은 바로 재능이 있으나 은거하며 관직에

나가지 않는 杜茶村입니다. 그의 문장은 법도와 격식은 있으나 안타깝게도 사람됨과 문장이 전혀 부합되지 않아서 다만 그 문장만을 좋아할 뿐입니다.. 吳街南은 문장과 행실은 모두 훌륭하지만, 옷차림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儒家의 中庸의 道와 맞지 않습니다. 7)

장조는 古文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大家의 문장을 배워야지 名家의 문장을 배워서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大家의 문장을 배우다가 실패하면 비슷한 모양으로 흉내라도 낼 수 있지만, 名家의 문장을 배우다가 실패하면 흉내는커녕 오히려 배우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조는 당시 문인들 중 본받을 만한 大家로 杜濬과 吳肅公을 꼽고 있으며, 아울러 그들의 인격과 행실까지 대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장조는 서양학자인 畢譯民에게 천문학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 자세하게 묻기도 하였다.

듣자하니 선생의 나라에서는 하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늘의 형체가 둥글고 땅이 그 중간에 있으며, 땅의 형상은 둥글고 사방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으며 상하좌우에 모두 각각의 세상이 있다고 여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에 있는 우리는 거꾸로 서있으며 서로 발바닥을 마주대하고 있고, 우리 쪽이 낮이면 거기는 캄캄한 밤이고, 거기가 새벽이면 우리는 저녁이고 동서방향도 정반대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설명이 비록 비슷한 것 같기는 하지만, 지면의 형상이 둥글다는 말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떡이나 동전처럼 생겼나요? 아니면 타원형의 香櫛이나 氣毬 같은 모양인가요? (중략) 가령 香櫛이나 공처럼 생겨서 모든 곳이 설령 둥글다고 하여도 남극과 북극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태양과 달은 어떤 모양일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 나라의 주장대로라면 태양과 달은 분명 줄곧 그들의 지평선 주위를 회전할 것이고 그렇다면 낮과 밤이 없고 겨울과 여름도 없고 영원히 새벽과 저녁만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남극과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7) 張潮, 『尺牘偶存』卷三, 「與許師六編修」: “竊以爲古文之體有二, 大家之文, 有名家之文. 學爲古文者, 則當學爲大家之文, 不當學爲名家之文. 學大家而不得, 所謂刻鵠不成尙類鶩; 學名家而不得, 則未免於畫虎不成反類狗矣. 以潮所獲交能爲大家者, 指不數屈, 其最合鄙意者, 杜茶村處士, 行文極有法度, 惜其人不能與文相稱, 徒愛其文而已; 吳街南征君文行兼優, 而冠裳被服殊非吾儒中庸之道.”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4쪽.

분명 건디기 어려울 터인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천문학에 매우 조예가 깊으시니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제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

장조는 평소에 서양학문 중 천문학과 수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때마침 서양 학자를 통해 접한 새로운 사실에 장조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장조는 편지에서 평소 자신이 가졌던 의문점에 대해 직접적인 필치로 자세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때로는 문인들과 詩文을 주고받으며 내용 가운데 잘못된 점이 있을 때도 서슴지 않고 지적하며 토론하기를 즐겨하였다. 族姪인 張韻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시 가운데 ‘磚床’이라는 두 글자는 어떤 典故를 인용하였는지 모르겠군. 아니면 조카에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벽돌로 침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네. 조카가 북방사람들이 아궁이로 된 침대 만드는 것을 배운 적이 없다면 이 두 글자는 그저 근거 없는 상상이 되어버리네. 이러한 단어로 가난한 집안 상황을 묘사한다면 시를 읽는 독자들이 이 일이 거짓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 전체의 진실성까지 의심할까봐 걱정이 되네. 원래는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려 했다가 도리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곤란함에 처할 수도 있다네. 나에게 분명히 알려주게. 만약 정말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벽돌로 침대를 만들어서 세상에 알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9)

- 8) 張潮, 『尺牘偶存』卷三, 「與西洋學士畢譯民」: “僕聞貴域言天者云, 天體渾圓而地居其中, 地形亦圓, 四無所附, 左右上下皆成世界. 地下之人與此處之人, 腳板相對. 在我爲晝者, 在彼爲夜; 在彼爲卯者, 在我爲酉, 其於東西也亦然. 僕謂此說固然近似, 但不知所謂地形之圓者, 將如餅如錢之狀乎? 抑如香繚氣球之狀乎? (中略) 使其如橡如球, 則是入而皆圓, 吾不知極南極北兩處之人, 其日月果作何狀乎? 苟以貴域之說推之, 明月必且橫周於其地之腰, 必且無晝、無夜、無冬、無夏, 恒如味爽及黃昏時而後可. 若果如此, 生其地者亦甚難堪, 不知將何說以處? 此先生於天學必精, 幸詳確以示, 俾釋胸中數十年之疑, 幸甚幸甚.”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3쪽.
- 9) 張潮, 『尺牘偶存』卷一, 「與諧石」: “至詩中有磚床二字, 不知出于何典? 或老侄實事耶? 磚不可以爲床, 三尺童子皆知之. 而老侄又決無效北人打炕之事, 則此二字乃凭空杜撰, 以描寫貧士家風. 吾恐世之讀是詩者, 因一事之虛并疑他端之不實, 是欲訴苦而不能動人之觀听矣. 幸明以示

장조는 집안 조카인 張韻이 보낸 시를 통해 시에는 진실 된 감정이 담겨있어야만 비로소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좋은 시를 짓는 법은 바로 그럴싸한 詩句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 내면의 진정성이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장조는 마지막 문구에서 이전의 딱딱한 분위기를 농담 섞인 말을 통해 부드러운 분위기로 전환하며 편지를 마무리 하고 있다. 이처럼 장조는 척독을 통해 명료하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가 전하고자 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2) 삶의 애환

장조의 척독에는 말년에 다친 病魔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삶의 애환을 주제로 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장조는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하여 자주 病魔와 싸워야 했다. 게다가 말년에 이르러서는 화재로 인해 가산을 모두 잃게 되고 정치적인 사건에 까지 연루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다.¹⁰⁾ 장조는 마음속의 고통과 울분을 친한 벗들에게 전하며 위로를 얻고자 하였다. 다음은 각각 江允冰과 余同野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오랫동안 선생을 뵙지 못하고 소원했더니 마음이 우울합니다. 예전에 선생께서 지팡이를 짚고 풀신을 신고 자유롭게 雲氣를 마시며 養生하시던 모습이 마치 신선 같아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여름부터 가을까지 좋지 않은 일을 당하였지만, 그 일에 대해선 선생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큰 병을 앓고 난 후 손과 발에 궤양이 생기고 손가락과 팔뚝에 소나무의 껍질 같은 것이 가득 생겨서 정말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선생께서 보시면 분명 제가 黃山의 소나무로 변했다고 하실 것입니다.¹¹⁾

我,倘果有其事,吾爲作磚床行以告於世,何如?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29쪽.

10) 張潮의 생애에 관해서는 송경애, 「張潮生平考述」, 『中國語文學論集』 제 33호(2005년)에서 검토한 바 있다.

11) 張潮, 『尺牘偶存』卷一, 「與江允冰」: “尸一久疏, 勞心忉忉, 遙想道翁杖屨逍遙, 烟雲供養, 眞不啻

작년에 저는 실족하여 험난한 수렁에 빠졌는데 선생이 넘었던 黃山의 閻王壁과 天都峰보다 더욱 험난하기만 합니다. 선생은 여전히 예전과 같으시지만 저는 물려받은 家産을 모두 탕진해버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몇몇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꾀박을 피할 길 없어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잠시 몸을 피신하였습니다. 선생처럼 훌륭한 분이 방문해 주셨는데도 극진히 환영해드리지 못함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춘추시대 쫓나라의 子犯이 “신하된 자로서 제 자신이 죄가 있음을 아는데 하물며 왕께서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는데, 귀하고 훌륭한 선생께서 예의법도를 벗어난 저의 행동을 용서해주실 수 있으신지요?¹²⁾

두 통의 편지는 각각 장조가 병으로 인한 고통과 갑작스럽게 닥친 재앙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余同野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 대한 울분과 배신감을 明代 馬中錫의 『中山狼傳』에 나오는 中山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장조는 힘든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잠시 고향으로 몸을 피신한 사이 자신을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余同野를 향해 晉文公에게 용서를 구했던 子犯의 말을 인용하여 미안함을 전하고 있다.

장조의 출판 인생에 있어서 王暉은 최고의 조력자이자 가장 마음이 통하는 친한 벗이었다. 장조의 『척독우존』에는 王暉에게 쓴 편지가 35통이 수록되어 있으며, 『척독우존』에 수록된 마지막 편지가 바로 王暉에게 보낸 것이었다. 장조는 이 편지에서 말년에 닥친 갖가지 불행에 대해 王暉에게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다음은 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神仙中人,何羨如之. 僕自夏徂秋,事多拂意,有難爲道翁告者. 大病後手足皆瘡,指臂間纍纍然如松上龍鱗,莫可名狀. 若使道翁見之,必以爲黃山松所化耳.”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22쪽.

- 12) 張潮, 『尺牘偶存』卷十一, 「復余同野」: “弟去歲再失足坑阱中,較之先生歷閻王壁登天都峰爲更甚. 蓋先生仍是本來面目,而弟則青氈舊物毫無所存,猶幾不免於中山狼之口,是以暫避鄉間. 高賢枉顧,竟不獲一倒屣,其爲罪歟. 誠子犯所云:臣猶知之,而況於君者,不識大君子能有之於禮法之外否也.”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4쪽.

작년 여름 저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화를 당하였고, 설날 그믐날이 되어 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순에 이르러 저의 안사람도 病床에 있다가 이듬해 1월 15일 원소절에야 비로소 차츰 거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불행이 찾아와 5월 5일 단오절이 지난 후 저의 아내는 다시 병이 재발하여 6월 3일 날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후에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6월 8일에는 저의 넷째 동생이 죽었습니다. 비록 동생이 저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며칠사이에 연이어 가족 두 사람이 죽으니 얼마나 마음이 비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겨울에 또 다시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書齋가 난폭한 여자에 의해 망쳐지고 차마 듣기 어려운 온갖 욕설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관리가 청렴하고 현명하신 분이어서 저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중략) 왜 하늘은 이렇게 저희 두 사람에게 화를 내시어 저희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요? 하지만 선생은 그래도 저보다 나은 것이 훌륭한 사위가 둘이나 있어 서적을 刊刻하여 선생을 자랑스럽게 하는군요. 저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지만 출판할 능력이 안 되니 나중에는 분명 모두 소실되어 버리겠지요. 요즘 저는 『唐張潮詩』를 書名으로 하여 책을 한 권 출판하려고 합니다. 뒤에는 詩話를 덧붙이려고 하는데 이미 몇 개의 評語는 얻어 놓았습니다. 부디 선생께서도 붓을 들어 저에게 몇 구절 評語를 써주십시오. 만약 古今의 인물인 張潮 두 사람이 합해진다면 더욱 훌륭하고 절묘한 일이 되겠지요. 제가 최근에 刊刻한 책들을 함께 보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이 편지에는 다 쓰지를 못하겠군요. 13)

이 편지는 『척독우존』의 맨 마지막 부분에 수록된 것으로 장조가 세상을 떠나기 대략 일 년 전인 1706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장조는 사위를 통해 출판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王暉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책들

13) 張潮, 『尺牘偶存』卷十一, 「復王丹麓」: “前年夏月已遭橫逆. 迄除夕而未已及臘中旬, 拙妻臥病, 至次歲上元始離床第. 而橫逆又復相尋, 重五節後老妻病又復發, 六月初三便爲弟先驅螻蟻, 悉索敝賦以襄後事. 初八日四舍弟又復物故, 雖與弟不同居, 然數日之內連遭二喪, 慘可知矣. 弟既已破家艱窘, 萬狀不意, 冬月又有無妄之災, 書室中爲強暴女流所蹂躪, 詈罵污穢不堪聞. 幸官長廉明, 不波及於弟. (中略) 何彼蒼之厄我兩人竟同出一轍耶? 然先生有勝於我者, 則以有兩令坦爲剗鬪生光. 弟卽有種種綴述無力付梓, 將來必致散失矣. 近欲以『唐張潮詩』梓成, 後附詩話, 已得數條. 欲懇掾筆三五行, 若能以古今兩張潮結合有情爲更妙耳. 近刻附政, 不盡.”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24쪽.

이 훗날에 모두 유실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장조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판에 대한 자신의 뜻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王暉에게 唐代 시인 장조의 시를 출판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결국 장조는 『唐張潮詩』를 출판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3) 부탁과 위로

『척독우존』에는 장조의 출판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다수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편지에는 자신이 편찬 중에 있는 叢書에 수록할 작품을 부탁하거나, 자신의 책에 序言과 評語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빌려준 책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벗들의 고민을 위로하는 편지들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먼저 冒襄에게 作詩에 대한 가르침을 청하며 書畫를 부탁하는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자.

제가 선생께서 사시는 곳에 별장 한 채를 구입한 이유는 바로 직접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줄곧 찾아뵙지 못하고 있다가 다행히 선생의 여러 작품들을 대하게 되니 저의 거처가 잠시나마 환하게 밝아지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 향불을 피워놓고 선생의 문장을 감상해보니 참으로 그 문장의 훌륭함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비천함을 무릅쓰고 선생의 작품에 대해 시 한 수를 지어 가르침을 청하오니 시간 날 때 읽으시고 지도 부탁드립니다. (중략) 유명한 文士들과 시를 주고받다가 선생에게 두 분의 재능이 뛰어난 부인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에게 몇 점의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시간을 내어 선생의 부인에게 시를 지어달라고 부탁할 수 없어 저의 보잘 것 없는 詩句를 함께 보내오니 대신 글씨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저의 詩句가 부인의 화장대 앞에 웃음을 가져다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도 역시 저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14)

14) 張潮, 『尺牘偶存』卷一, 「與冒辟疆」: “仆於貴邑置此別業者, 意欲親聆教益耳. 乃尙未摳謁, 遽蒙先施復示以種種大著, 頓使寓齋生色, 何幸如之. 旅中無事, 焚香細讀, 非一詞所可贊, 因各贅一詩請政, 幸賜覽而筆削之. (中略) 又見諸名流倡和贈答詩, 知香閣中有二才子, 不識肯爲鯁生潑墨乎? 不敢徒手, 請乞特賦拙句以代潤筆, 倘得蒙奩前之一笑, 則尤爲厚幸耳.”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4쪽.

冒襄은 명말 四公子 중의 한 사람으로 저명한 文學家이자 書畫家였다. 편지에서 언급한 冒襄의 첩은 바로 당시 秦淮지역의 名妓 董小宛을 가리키는데, 그녀는 시와 書畫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인물이다. 장조는 冒襄와 董小宛의 애정고사를 주제로 한 작품인 張明弼의 「冒姬董小宛傳」를 『虞初新志』卷三에 수록하기도 하였다. 몇 년 전 빌려 준 책을 돌려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도 있다. 장조가 冒靑若에게 보낸 편지의 畵文을 살펴보자.

오랫동안 선생께 가르침을 청하지 못했더니 선생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선생께서 말년에 畵文을 감상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풀고, 집안에서 홀로 책을 읽으며 한가로이 지내신다니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몇 년 전 선생의 부친께서 저에게 『揚州府志』한 권을 빌려가셨는데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책의 〈流寓〉 항목 안에 저의 부친에 관한 간단한 傳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의 刻版이 관청의 창고 안에 있어서 다시 인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려받아야 하는데 마치 孫權이 劉備에게 荊州를 돌려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요.¹⁵⁾

몇 년 전 冒靑若의 아버지인 冒襄에게 빌려준 『揚州府志』한 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이후에 책을 돌려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오래 전에 빌려준 책이라 돌려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돌려받아야 하는 자신의 입장을 孫權이 劉備에게 荊州를 돌려달라고 했던 일화에 빗대어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다.

장조는 자신의 淸言小品集인 『幽夢影』에 대해 친한 벗들에게 評語를 써달라고 부탁하였는데, 余懷에게는 『幽夢影』에 序言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선생의 훌륭한 모습을 뵈고 싶은 마음이 마치 漢武帝가 신선을 보고 싶

15) 張潮, 『尺牘偶存』卷一, 「與冒靑若」: “久不奉教, 懷想爲勞, 遙意老年台賞奇析疑, 閉戶著書, 艷美爲劇. 向年尊公先生借去 『揚州府志』一部, 久未擲還, 內‘流寓’條中有先君小傳, 一則今板貯郡庫, 輕易不能刷印, 是以不得不向劉使君索取荊州耳.”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17쪽.

어 마음과 같습니다. 오늘 운 좋게도 선생에게서 刻石을 얻게 되고 게다가 저를 위해 『花影詞』에 序를 써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니 제가 얻은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욕심이 마치 蔡經이 선녀 麻姑를 만나고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麻姑의 새 발톱 같은 섬세한 손가락으로 자신의 등을 긁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군요. 이렇게 욕심이 부리니 신선 王遠에게 회초리를 맞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비록 王遠이 蔡經을 때렸지만 麻姑는 전혀 개의치 않고 용서한 이유는 바로 그녀의 손톱이 너무나 새의 발톱과 흡사하게 생겨서 蔡經이 등을 긁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禪世說』에 序言을 써주셔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幽夢影』에도 바쁘시더라도 몇 마디 序言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족하지 못하고 선생께 이러한 일들을 부탁드리면 선생께서는 王遠처럼 저를 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麻姑처럼 개의치 않으실 런지요? 16)

장조는 余懷에게 갖가지 부탁을 늘어놓으며 葛洪의 『神仙傳』에 나온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 들고 있다. 東漢 시기 蔡經이란 사람은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신선 王遠이 강림하길 기원했다. 王遠은 선녀 麻姑를 데리고 함께 강림하였는데, 蔡經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麻姑에게 자신의 가려운 등을 긁어달라고 부탁했다. 蔡經은 王遠에게 불경하다는 죄목으로 회초리를 맞게 되지만, 麻姑는 정작 蔡經의 행동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장조는 자신이 余懷에게 온갖 부탁을 하는 이유는 蔡經이 麻姑의 손톱이 새 발톱처럼 생겨서 등을 긁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도 余懷가 훌륭한 문장 솜씨를 가졌기 때문에 갖가지 부탁하는 것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麻姑와 같이 개의치 말고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장조는 자신의 작품을 當代 문장가들에게 보이며 조언과 가르침을 청하기

16) 張潮, 『尺牘偶存』卷二, 「與余澹心徵君」: “僕之想望豐采, 不啻如漢武之於神仙. 今幸得親承罄欵, 復辱題小像及『花影詞序』, 所得不爲不多, 而貪心猶有未已. 此正如蔡經既見麻姑, 猶欲得其手爪以抓背, 其不爲王方平所鞭責者幾希. 然方平雖鞭之而麻姑究不以介意, 得毋以此手既似鳥爪原足, 以致背癢者之垂涎, 故恕之耶. (중략) 其『禪世說』乞賜大序, 以垂不朽, 至『幽夢影』一編則乞揮數語以爲弁. 無厭之請, 不識先生將爲王方平揮鞭以責乎? 抑將爲麻姑之漫不介意乎?”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15쪽.

도 하였다. 項靈野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제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고, 선생의 문장을 배우기 위해 刊刻한 저의 작품 몇 개를 선생께 보냅니다. 선생께서 이제 막 병이 나오셔서 저의 작품을 세심하게 고쳐주시지 못할 줄을 알지만, 저의 작품 중에는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 아마도 선생께서 이것을 枚乘의 「七發」로 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의사가 선생께 처방한 약보다 저의 작품이 더욱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¹⁷⁾

장조는 病床에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項靈野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한 監修와 조언을 부탁하며 자신의 작품을 枚乘의 「七發」에 비유하고 있다. 項靈野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부탁하기 미안한 마음 가득 하지만, 자신의 작품을 「七發」과 같이 재미를 가지고 읽는다면 어느 의사가 처방한 약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하고 있다. 실제로 장조는 枚乘의 「七發」과 비슷한 내용의 작품인 「七療」를 짓기도 하였다.

장조의 척독에는 지인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내용 외에도 지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도 있다. 친한 벗인 江之蘭이 병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보낸 편지의 畵文이다.

오랫동안 형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형님의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지만 발이 걷기에 불편하시다니 절뚝거리면서도 여전히 줌도독질은 할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가하게 침상에 누워 정사를 처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 華胥國처럼 천천히 걷는 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물주가 백성들을 쉬게 하고 잘못을 만회하려는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집에 계실 때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대나무로 가마를 만들어서 아드님이나 문학생들에게 가마 안에 들어가서 타고 놀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의사로서 『醫

17) 張潮, 『尺牘偶存』卷一, 「與項靈野同年」: “不揣效顰郵呈教, 又拙刻數種附政, 極知病後不耐丹黃, 以其中可笑者多, 或可藉以當枚生「七發」, 則望聞問切之流尙當遜弟爲上客耳。”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19쪽.

津』이외에 또 다른 대나무 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군요. 저에게 한번 시승하도록 하심이 어떠신지요? 18)

거동이 불편하여 우울해 있을 江之蘭에게 줄곧 농담을 건네며 친구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장조는 『史記』의 「汲鄭列傳」에 나오는 東海太守 汲黯의 故事와 黃帝가 華胥國에 가서 정치에 대해 깨달음을 얻었던 이야기를 건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때로는 좋은 점도 있다고 위로하고 있다. 汲黯은 東海太守를 지낼 때에 오랫동안 병중에 있었는데 그가 다스리던 곳이 오히려 전보다 태평하였고, 黃帝는 華胥國에 가서 無爲政治가 바로 좋은 정치임을 깨닫게 된다는 일화이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조물주에게 이유를 묻고 싶다는 친구의 편지에 장조는 조물주가 그에게 잠시 휴식을 주기 위함이라고 위로하였다. 張潮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쉼을 갖게 된 친구에게 집안 아이들을 위해 대나무로 가마를 만들어 주는 것도 삶의 작은 행복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평소 해학적인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던 친구에게 농담 한마디를 잊지 않는다. 江之蘭은 이전에 『醫津一筏』라는 醫術書를 지었는데, 이후로 또 다른 책을 지었는지에 대해 “『醫津』之外另創一筏”로 묻고 있다. 筏는 대나무로 만든 배를 가리킨다. 장조는 혹시 다른 책을 지은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제일 먼저 보여 달라는 뜻을 “저에게 한번 시승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신지요?”라는 장난말로 내비치고 있다. 말장난을 통해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장조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이다.

(4) 세태 비판

장조의 척독집에는 당시 사회적인 문제와 부조리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도 다

18) 張潮, 『尺牘偶存』卷三, 「與江含徵」: “許久不得足下消息, 近始知貴恙, 雖漸脫體而足復不良於行, 但不識脚短三寸猶復能作賊否也。 然優遊臥治中, 頗與華胥國相近往來, 栩栩自有尊者存庸, 詎知夫造物者之不以此爲足下息黔補刑耶? 閒居無事時當制籃輿一具, 令兒子門生輩舁之而遊, 亦殊不惡。 不知醫敢於『醫津』之外另創一筏, 請試乘之何如?”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3쪽.

수 수록되어 있다. 아래의 편지는 揚州 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惡習에 대해 朱其恭에게 토로하는 내용이다.

양주에는 나쁜 풍습이 두 가지 있는데, 어린여자 아이를 사다가 길러서 매파를 통해 기생으로 파는 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악습은 바로 가짜로 사람이 죽게 된 책임을 물어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 만약 불행히도 부인이나 며느리가 죽으면 친정에서 깡패 한 무리를 데리고 와서 소란을 피우고, 남의 집 앞에서 무리지어 그 집안의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다고 비방하기도 하고, 사위에게 다른 여자가 있어 자기 딸을 미워했다고 비방하며 욕설을 퍼붓고 때리거나 器物과 재산을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중략) 또 다른 惡習은 가격을 더하는 일입니다. 무릇 전답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가격의 높고 낮음은 모두 계약을 체결할 당시 흥정할 때 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거래할 때 전답의 가격이 서로 적당하지 않으면 살 때 가격을 조금 더해야하고, 만약 가격을 더하지 않겠다고 하면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래 사는 측에게 가격을 더하여 사라고 강요할 수 없고, 이왕 팔기로 결정했으면 설령 이후에 전답의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약간 낮다고 생각되어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계약가격을 상의해 놓고 나중에 이유를 들어 가격을 올리고 마지막에는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팔지 않겠다고 나섭니다. 이 일 역시 처음에는 죄상을 나열하며 무고한 사람을 포함하고 官府에 고발하니 이것이 바로 두 번째 惡習입니다. 선생께서는 오늘날의 澹臺滅明과 같이 정사에 힘쓰며 公務를 위한 일이 아니면 사적으로 뒷사람을 찾지 않고, 현재의 世道를 위해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이러한 惡習을 중형으로 다스리도록 하고 사악한 풍습을 징벌하여 선량한 백성을 보호하신다면 참으로 크나큰 공적을 세우실 것입니다. 19)

19) 張潮, 『尺牘偶存』卷二, 「與朱其恭」:「揚州最惡之俗有二,而稍媒瘦馬不與焉. 其一爲假人命. 人或不幸而喪妻喪媳,其母家輒率惡黨多人,誣誦鬪集,或誣其翁姑督責太甚,或誣其夫之他癖生憎,辱詈強毆無所不至,毀壞器物不啻抄扎.(中略)其次則找價之弊. 夫交易田產必有文契,價之低昂皆系當時議定價. 苟不稱其產,賣時便應加增彼,若不增,我可不賣. 原不能強之也. 既已賣斷,即使價果稍廉,亦應無說. 今乃翻爲一賣、二找、三杜絕之名,亦始之以恫疑虛喝,而繼之以誣告公庭,此第二惡俗也. 吾兄爲此日之澹臺滅明,以公事至偃室,時能爲當道極力言之,懲其嚴爲厲禁,俾懲習風而全善類,眞無限功德也.”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23쪽.

장조는 젊은 시절 여러 번 과거시험에 낙방한 후 공부를 그만두고 揚州에 거주하며 출판업에 종사하였다. 그는 당시 揚州 사회에서 만연해 있던 사회적 惡習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惡習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조는 당시 관리제도의 비리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었다. 周星遠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오늘날 문인들은 대부분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어 생계를 유지합니다. 매일 뇌물이 눈앞에 놓이고 종종 뇌물이 너무 적다며 가격을 올리기도 합니다. 조정에서는 뇌물 받는 행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²⁰⁾

당시 청대 사회는 관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 관리가 되기 위해 뇌물 거래가 성행하기도 하였다. 장조는 평생 입신양명에 대한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을 품고 살며, 자기 자신을 일반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전문가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골동품으로 비유하며 위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장조는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로 당시 부조리한 세태를 꼬집으며 마음속의 불만을 벗들에게 토로하였다.

2) 尺牘의 서술적 특징

(1) 일상을 통한 정감의 표현

한가한 일상은 척독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장조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 자신의 진실된 감정과 자유분방한 내면세계를 표현하였다. 서로 만나서 시로 화답하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벗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項斗文에게 보낸 편지이다.

20) 張潮, 『尺牘偶存』卷二, 「與周星遠」: “此日操觚家大抵藉選事以糊其口, 苞苴竿牘日陳於前, 往往視之以爲低昂. 殿最雖欲嚴於去取, 其道無由.”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5쪽.

庚戌年에 선생과 제가 京城에서 만나 함께 즐거웠던 일을 회상해보니 그 일이 꿈이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즐거움을 다시 얻을 수 없고, 삼삼오오 서로 마음이 통했던 친구들은 마치 새벽녘에 해 뜨면 사라져버리는 별들과 같습니다. 만나고 헤어짐이 이처럼 무상하고, 또한 生死도 각기 다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세히 생각해보면 어찌 크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韓愈의 문장에서 “내 나이가 아직 사십이 안 되었는데 눈은 이미 뿌옇게 잘 보이지 않고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마냥 반백이 되었고 치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글을 읽고 늙음이 빨리 오는 것에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십년 전에 읽었던 그 문장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선생의 건강함과 왕성한 식욕이 저는 부럽습니다. 21)

친구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꿈인 듯 아련하고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기에도 더욱 그림고 소중한기만 하다. 세월은 流水와 같아서 십년 전 읽었던 문장 속 韓愈의 모습이 이제는 장조 자신의 모습이 되어 버렸다. 세월의 무상함과 지난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편지이다. 이번에는 黃雲에게 부친 편지의 畵文을 살펴보자.

어제 澗酒를 얻으려다 얻지 못하고, 인삼주 한 병을 얻었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주기에는 아무래도 아깝고, 선생 댁에 보내는 것만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술을 선생께서 시를 낚는 데나 쓰는 것이 어떠신지요? 22)

澗酒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구해 보려 했으나 얻지 못하고 대신 인삼주 한 병을 얻었다. 고귀한 신분의 친구에게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黃雲에게 보내어 詩興을 돋우는데 쓰게 하는 편이 낫겠

21) 張潮, 『尺牘偶存』卷四, 「寄項靈野」: “遙憶庚戌都門聚首之樂, 疑在夢中, 不可復得, 卽三五知己亦復如落落晨星, 旣聚散之靡常, 復存亡之各別, 靜言思之, 能無浩嘆! 向讀昌黎文云: ‘吾年未四十, 而視茫茫, 而發蒼蒼, 而齒牙動搖, 未嘗不訝其老態之早. 今不意弟十年前於此數語者, 無一不備, 則吾兄之康強健飯, 當又爲弟之所艷羨者已.’”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22쪽.

22) 張潮, 『尺牘偶存』卷一, 「與黃交三」: “昨代索澗酒, 不可得, 覓得人參酒一瓶. 如送貴友, 未免可惜, 不若寄回珂里, 爲尊公釣詩鉤. 何如?”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25쪽.

다고 말하고 있다. 짧은 편지 속에 黃雲에 대한 장조의 따뜻한 情感이 담겨있다.

(2) 유머와 풍자의 활용

林語堂은 “유머는 일종의 마음의 상태이자 더 나아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며 인생을 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²³⁾라고 말하였다. 장조는 편지 속에 유머와 해학을 담아 진실 되고 개성이 넘치는 자아형상을 표현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 과거를 통해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펼치려고 했으나 줄곧 낙방하면서 과거에 대한 꿈을 접고 오로지 저술 활동과 출판업에만 몰두하였다. 훗날 천냥을 들여 한림원공목이라는 말단 관직을 사기도 했으나 얼마 후 그만두었다. 장조가 벗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그의 유머와 해학을 통해 모순된 내면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江之蘭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자.

저는 열다섯 살 성년이 된 후부터 교육을 받으며 큰 뜻과 포부를 품었지요.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시작하자마자 생계가 어려워 뜻을 꺾고 줄곧 세월만 허비하다가 한림원에 합격한 文士를 보고 신선과 일반 사람은 天壤之差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새로운 선발제도가 생겼다 길래 잠시나마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제게 관직에 있지 않은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지 말고 成語를 이용해 남들의 비웃음에 변명하라고 하시니 “詞壇에서 맨 마지막에는 張山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張山의 뒤에 있네.” 라고 말씀드리지요. 또한 순서가 바뀌어 도리어 제가 여러 훌륭한 분 앞에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清涼劑와 같은 말을 형님의 逍遙湯과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²⁴⁾

23) 林語堂, 『生活的藝術』, 西安: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6년.

24) 張潮, 『尺牘偶存』卷二, 「復江含徵」: “弟自束髮受書, 其志亦頗不小. 不謂初而偃蹇, 繼復因循, 望翰苑中人, 未免有仙凡之感. 近以新例聊復, 不得已而思其次也. 吾兄乃以未席爲嫌, 請援成語以解嘲, 曰: 詞林盡處是張山, 餘人更在張山外. 又況顛之倒之, 反在諸公之上乎. 但不知此一把清涼散, 較之吾兄之一味逍遙湯爲孰優耳.”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4쪽.

장조는 江之蘭에게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송대 孫山의 故事를 인용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송대 範公稱의 『過庭錄』에는 孫山에 대한 일화가 나온다. 孫山은 同鄉 친구의 아들과 함께 과거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는데, 孫山은 합격하고 친구의 아들은 낙방하였다. 孫山이 먼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친구는 그의 아들의 합격 여부를 물었고, 孫山은 차마 친구의 아들이 낙방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解名盡處是孫山, 賢郎更在孫山外”라고 대답하였다. 바로 합격자의 맨 마지막 이름은 바로 자신 孫山이었고, 친구의 아들 이름은 孫山の 뒤에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名落孫山’이라는 成語는 시험에 낙방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장조는 이 말을 “詞林盡處是張山, 餘人更在張山外”라고 표현하여 ‘孫山’을 ‘張山’으로 바꾸고 ‘解名’을 ‘詞林’으로 바꿈으로써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장조는 자신이 비록 文藝界에서 유명한 문사들보다는 못하지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수없이 많다고 여기며 安慰하고 있다. 사소한 오해로 빚어진 문제를 웃음 섞인 편지로 부드럽게 풀고자 하는 내용의 편지도 있다. 譚公자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저한테서 시를 얻으려다 거절당했다는 말씀은 선생이 자처하신 일입니다. 제가 이곳에 산 이후로 저에게 시를 얻으려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저는 반드시 사람들이 재촉해야 비로소 붓을 들어 시를 짓기 시작하고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가져가라고 약속을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저에게 시를 지어달라고 재촉하지 않으면 한 쪽에 제쳐두고 시를 완성하지 않으니 사람을 시켜서 시를 그 집에 가져다주라고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 문지기도 역시 그렇게 손님을 거절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생각해보니 이것은 선생의 姓氏가 譚인데 癡과 같은 음이고, 또한 선생의 호칭도 公子라고 하니 하인이 중풍에 걸린 公子가 시를 보내라고 한다고 여겨 그가 당연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농담입니다.²⁵⁾

25) 張潮, 『尺牘偶存』卷一, 「復譚公子」: “接手教, 不勝驚駭, 所云: ‘白華樓其主人, 雖於僕有戚誼, 然僕從未一至其處, 并不知其制度向背果作何狀.’ 今足下乃云與僕同登, 豈夢中事乎? 至於送詩遭拒, 此則足下之自取耳. 僕寓此地, 求詩者實繁, 有徒, 僕必待其催促, 然後擲管, 約以數日後到舍携

다시 江之蘭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을 살펴보자.

형님이 특히나 醫術을 중히 여겨 이와 관련된 책을 한 권 쓰신다고 하니, 이는 불후의 대업일 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라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예를 배우려면 종이를 써야하듯이 醫術을 배우려면 환자를 써야만 합니다. 저는 예전에 형님이 등기부 종이를 懷素가 파초 앞에 글씨 연습을 하듯 쓰시던 것을 보았습니다. 쓸모없는 종이를 가져다가 쓰면 아무리 써도 다 쓰지 못하니 서예나 글자를 연습하는데 사용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형님께서 醫術을 배우신다면 형님이 연습하는데 써야하는 쓸모없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저는 형님이 매우 걱정이 되는군요. 坊間에서 공연하는 無聲戲에서 “揚州에는 다만 아무개 한 사람만 의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형 집행수”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말이 약간 지나치기는 하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형님은 분명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중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님과 같은 사람들도 역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아마도 조물주께서 사람의 마음이 교활하고 사악하니 형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악한 사람을 없애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형님이 정말 사형 집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되려면 蘇東坡가 말한 것처럼 “몇몇 살찌고 건장한 사내를 잡아야지 속 시원하실 것입니다.” 농담입니다.²⁶⁾

장조는 자신과 가장 친한 벗인 江之蘭이 醫術에 관심을 갖고 醫術과 관련된 책을 쓰겠노라고 하자 唐代 유명한 서예가인 懷素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농담을 건넸다. 懷素는 술에 취하면 아무 곳이나 글씨 연습을 하였는데, 그는 파초를 심으며 종이를 심는다고 농담하기도 하였다. 懷素가 파초 앞에 수없이

去,如彼不催詩則竟付之不作,從無遣人登門送詩之事也。然彼闔亦不應如此拒客,僕細思之,得無以尊姓爲譚,譚與癡同音,而尊号又爲公子,彼誤以爲癡公子送詩,其拒之固宜耳。一笑。”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14쪽.

- 26) 張潮, 『尺牘偶存』卷一, 「與江含徵: “道兄留心青囊,欲集成一書問世,不但爲不朽大業,且可藉以活人,何快如之。但學書紙費,學醫人費。曩見吾兄以回場號簿代懷素綠蕉所費者,乃無用之紙,取之無禁,故足供揮灑而有餘。今若學醫安得有如許無用之人以供吾兄之費乎? 人面起草,甚爲吾兄慮之。無聲戲有云‘揚州醫生止某一人,其餘皆劊子手’語。雖太狠,頗爲確當,吾兄歛人當不在其內耳。然此輩殺人,亦非無故,想造物者,因人心艱險,假手若輩除之。吾兄若要作劊子手,須如東坡所云‘得幾個肥漢,方快活也。’一笑。”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11쪽.

글씨 연습을 했듯이 江之蘭에게도 醫術을 익히려면 환자가 필요할 터이니 세상의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들을 실습용 환자로 쓰라고 농담하고 있다. 이러한 장난스런 농담을 통해 장조는 세상의 부조리하고 사악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속의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의 진실한 감정이 담겨진 유희적인 언어 표현은 쓰는 사람 뿐 아니라 읽는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주기도 한다. 장조는 평소에 말이 별로 없고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는 비교적 과묵한 성격으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였지만, 척독을 통해서 나누는 벗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웃음과 해학을 통해 생활의 즐거움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4. 결론

이상으로 장조의 『척독우존』을 중심으로 장조 척독의 주제와 서술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척독은 書에 비해 길이가 짧으며, 개인의 감정과 사상을 자유롭고 표현할 수 있는 서정적인 개인의 편지라고 할 수 있다. 명 중엽 이후 문인들을 중심으로 개성과 자아를 중요시하는 小品文 창작이 유행하면서 小品文의 성격을 띤 척독이 문인들 사이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晚明 시기 袁宏道 『石公尺牘』, 陳仁錫 『尺牘奇賞』, 清代 초기 周亮工 『尺牘新鈔』, 汪淇 『尺牘新語』 등이 편찬되어 일반 독자들에게 널리 熱讀되면서 개인 척독집이나 尺牘選集을 편찬하는 풍조가 유행하게 되었다. 장조는 이러한 척독집 편찬이 유행하자 자신도 벗과 나누었던 편지를 각각 『척독우존』과 『척독우성』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當代의 유명한 문장가나 관료로부터 신분이 낮은 무명 문인들까지 매우 다양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장조가 당시 지식인들과 폭넓게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조의 척독은 대상이 많은 만큼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척독의 주제를 살펴보면 척독의 수량 만큼 매우 다양하다. 자

신이 겪고 있는 일상의 애환을 벗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하고 빌려간 책을 돌려달라거나 글을 써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기도 하며,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따뜻한 위로의 편지로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또한 벗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부조리한 현실 세태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문장의 서술도 척독의 주제에 따라 직설적인 필치로 표현하기도 하고, 평범한 일상을 나누며 소박하고 정감 있는 필치로 벗과의 정을 나누기도 하며, 때로는 유머와 낙천적인 필치로 읽는 친구나 독자를 웃게 만들기도 한다.

장조의 척독집은 그의 교유 관계와 저술, 출판 인생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의 척독집에는 기존의 척독과 마찬가지로 실용성이 강조된 내용과 명 중엽이후 小品文의 영향을 받은 문학성이 두드러진 척독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척독 속에서 장조는 함축적이고 은근한 필치로, 때로는 직설적이고 세밀한 필치를 통해 자신의 문학경향과 내면세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장조의 『척독우존』과 『척독우성』에는 당시 문인들의 문학경향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參考文獻

- 司馬遷,『史記列傳』, 서울: 출판사카치, 2006년.
- 林語堂,『生活的藝術』, 西安: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6년.
- 許慎著,班吉慶點校,『說文解字』,南京: 鳳凰出版社, 2004년.
- 尹恭弘,『小品高潮與晚明文化』, 北京: 華文出版社, 2001년.
- 張潮,『尺牘偶存』, 清乾隆四十五年重刻本, 北京大學圖書館藏.
- 趙樹功,『中國尺牘文學史』,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9년.
- 周作人,『雨天的書』, 長沙: 岳麓書社, 1987년.
- 鄧紹基·李玫,「尺牘文略論」,『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 제 24권 제1기, 山西師範大學, 1997년.
- 趙樹功,「尺牘之用」,『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제 1기, 河北大學, 2003년.

Abstract

A Research on Zhang Chao's Correspondence:
Focusing on Chi Du Ou Cun

Song Kyung-Ae

Zhang Chao was a literary author and publisher in the early years of Qing Dynasty. He widely associated with the writers of the time and by compiling 『Yu Chu Xin Zhi』, 『Tan Ji Cong Shu』, 『Zhao Dai Cong Shu』 and creating 『You Meng Ying』, a volume of essays, he became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world of letters in the early years of Qing Dynasty. Since the mid Ming Dynasty, letter set and selected works became popular among writers. Zhang Chao was influenced by this tide, and edited 『Chi Du Oou Cun』, 『Chi Du You Sheng』 through collecting correspondences which he and his friends exchanged. 『Chi Du Oou Cun』, of them is the collective letter set which Zhang Chao wrote to his friends. In order to research Zhang Chao's correspondences, this paper(draft) will investigate what made the selected works of the letter set become popular during the late Ming Dynasty first, and also will examine the subjects and narrative features of the correspondences in Zhang Chao's 『Chi Du Oou Cun』. Zhang Chao's correspondences are mainly composed of writing to criticize the ways of the world, writing about ordinary everyday life and writing to ask politely to his friends or to console them. He used straightforward expressions in his correspondences to criticize the social conditions of the time, or to unfold his literary claims. In additions, he also delivered his mind over the laughter and humor in the writing of asking his favor or of consolation.

The correspondence contained in 『Chi Du Oou Cun』 is invaluable resource to understand Zhang Chao's literary and academic world as well as day-to-day life of the writers of the time.

Key words : Zhang Chao, Chi Du Ou Cun, correspondence, themes, Ming Qing Dynasty

투 고 일 : 2013. 09. 09. / 심 사 일 : 2013. 10. 20. ~ 2013. 10. 27. / 게재확정일 : 2013. 10. 28.